

‘참좋은 우리절’ 불교문화대학 개강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임)은 8월 31일 제9회 불교문화대학 과정 입학식 및 고복식을 개최했다.

참좋은 우리절 불교문화대학은 기초 교리반과 경전반을 운영하며 매주 2회씩 28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는 사찰예법과 부처님 생애 등 불교강의와 한지문화축제와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불교유적지 순례를 통한 사찰문화 이해, 참선 명상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날 고복식에서 회임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문화대학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각자 자신 안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좋은 우리절의 불교문화대학은 매년 2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각사 청년회 범정택 회장 취임

“지난 1년간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정기법회에 법우님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각사(주지 도제) 청년회 35대 회장으로 재임한 범정택 회장이 8월 28일 원각사 대웅전에서 제35대 원각사 청년회장단 취임법회를 가졌다. 범회장은 취임사에서 “청년불자의 삶을 희망으로 일구어가고 싶다. 청년불자들의 신령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법회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원각사 청년회는 이날 취임법회에서 새로운 임원도 구성했다. 남부회장 안창훈, 어부회장 조은경, 감사 이숙동, 이수월 등이 각각 임명됐다. 범회장은 향후 각 부서별 부장들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원각사 청년회는 1979년에 창립된 광주의 대표적 청년회로 연꽃나눔 봉사단과 풍물패 빛을림 등 특별 활동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7시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범 보이며 전하는 것이 포교사

2000여 포교사, 화엄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지계와 전법 다짐



포교사 2000여 명이 8월 28~29일 월정사에서 팔재계 수계실천대회에 참여해 올바른 수행과 포교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항 사르고 꽃을 올려 계를 받은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리나이다. 계를 받은 이 공덕 모든 중생에 회향하며, 모두 위없는 깨달음과 무생법인 이루고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8월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팔재계 수계실천대회를 봉행했다.

팔재계 수계실천법회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는 자리로 2003년부터 매년 봉행되고 있다.

팔재계 수계식에는 전계대화상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갈마사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교수아사리 월정사 울주 원행 스님의 인례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2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해 지계실천을 통해 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르고, 올바른 수행과 이타행을 실천하리면서 “포교사는 역할은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계를 지키고 불법을 봉행하며 수행에 매진하는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행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입재식에서 “우리의 참회와 지계실천을 통해, 이 사회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고, 파편된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윤리관을 잡아가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모범 포교사 포상도 이어졌다. 개인상에는 광주전남지역단 이재연 포교사가, 단체상

에는 충북지역단 군포교3팀이 수상했으며 13명의 개인과 팀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포교사 단총재상, 포교사단장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

둘째 날에는 제15회 신규 포교사 558명과 제4회 전문포교사 11명에 대한 포교사품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니존사 군산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

“연습이 곧 기도입니다”

지난밤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동국사 대웅전. 평소와 다르게 고운 찬불가 소리가 뒤편 땀 바람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군산의 동국사(주지 종명) 팔음조 합창단원들은 늘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단원들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정감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단장

다리 한마음 예술축제’에 흥천사·성흥사 합창단과 함께 연합합창단을 구성해 불교를 대표하는 찬불가공연을 펼치는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합창단은 음성포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합창단은 신도들 중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단원들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정감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로 발생한 기름때 제거작업에도



군산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은 2006년에 창단됐다. 왼쪽부터 장미에 단장, 김경은 총무, 채현숙 반주.

장미에)은 2006년에 창단됐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단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30여 명이 동참해 여법한 합창단의 모습을 갖췄다.

팔음조 합창단원들은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음성공양을 펼치기 때문에 연습에도 열심이다. 단원들은 ‘연습이 곧 기도’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주 2회 이상 씩 모여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습 덕분에 팔음조 합창단은 그 범위를 넓혀 49개시 단원 모두가 참여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찰행사나 문화제 등에 참가해 본격적인 음성포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팔음조 합창단은 군산교도소, 군 법당에서 정기공연 및 위문 공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고 있다. 또한 이웃종교 합창단만 참가하던 ‘군산 물빛

동참하는 등 교계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팔음조 합창단은 이웃에 대한 자비의 실천에도 적극적이다. 합창단은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송편과 가래떡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300여 만 원을 군산시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단원들은 신도들이 모아온 헌책·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팔아 모인 수익금 20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동국사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하고 있다.

창단 때부터 합창단을 이끌어 오고 있는 장미에 단장은 “대내적인 활동은 물론 대외적으로 활동환경을 넓혀 교도소나 복지관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있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발전하는 계기 될 것

리더십 아카데미, 광주서 개최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재가불자를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방에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태)와 공동으로 9월 2일~12월 16일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별여행’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진행한다. 전체 53명의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강좌에는 △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이미령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대만불교의 실천체계와 미래조망(무문 스님, 백양사 승가대학 학장) △자기회복의 메시지, 수심결(강건기 전북대 교수) △불교의 우주관(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 △남방불교의 수행문화와 전통(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학 교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 △법종, 그 안에 깃든 의미(이순규 광주불교교육원장) △종교의 미래, 불교의 미래(박광서 서강대 교수) △불교적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진흥양의 열린 리더십, 그 현대적 조명(박희태 위덕대 교수)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진우기 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 등 전체 15회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9월 2일 진행된 인교식에서 정원재 재가 화엄학림 학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던 강좌를 교세가 약한 광주에서 열게 돼 기쁘다”며 “이번 강좌로 광주불교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 영산강을 지켜주세요”

영산강 문수선원 문수스님 산골재

문수선원(선원장 법신)은 8월 29일 영산강 승촌보에서 문수 스님 추모식과 산골재를 봉행했다. 법신 스님은 추모사에서 “세상에는 나쁜 것을 보고 방조하는 것이 더 나쁘다”며 “이제 문수 스님이 영산강이 되면 우리가 스님을 지키기 위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각운 스님(총무원 재정국장), 성조 스님 등 문수 스님의 도반들과 지홍 스님(낙동강 선원장), 무진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원에서 진행된 추모법요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의 유골을 나누고 아미타불 염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의 산골재가 영산강 승촌보에서 봉행됐다.

불에 맞춰 강에 띄워 보내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400년전 백제불교의 대향연에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찬란한 백제불교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는 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인대법회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큰스님을 모시고 봉행합니다. 백제 능사를 복원하고 점안식을 통해 생령력을 불어넣는 성스러운 대축제를 통해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하며 백제재현단지와 세계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54년 9월
-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태화산 마곡사 주지 원 혜 합장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개·원·대·법·회

일시 : 불기 2554(2010)년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백제능사 (부여군 백제재현단지 내)

세부내용 (문의 041-841-6221~3)

1부 **복장의식** 9월 10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2부 **점안식** 9월 11일(토) 오후 1시 ~ 오후 2시
3부 **개인대법회** 9월 11일(토) 오후 2시 ~ 오후 3시

주최 세계백제전 조직위원회 주관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인대법회 추진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범보신문

포교당 및 법당의 한국형 불단 용수 불단
보급형 90만원부터 고급형(삼나무원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나무의 효능 : 피톤치드는 유해물질과 스트레스로 손상된 몸과 마음을 맑게 해 주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임으로써 인체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피톤치드는 호흡기와 피부에 접촉되는 각종 균과 유해성 물질을 숲의 정화력 기운으로 걸러주고 감지합니다.

포교당 및 법당용 불단 용수문화사에서 오랜시간 준비하여 오늘날에 용수불단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제품 좋은가격으로 용수불단에 인연되시길 바랍니다.

용수불화사 인봉백용수
상담전화 010-2229-6867
계좌번호: 농협 217002-56-003359
본사: 교령사 용수문화사 184번지 본점 031-977-9337, 0031-977-9379

공장 방문 환영